오목배틀 텀 프로젝트 수행 소감 3조 2020182028 이규원

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사람들과 배틀하면서 동기도 생기고 또, 코로나 등 여러 이유로 사람들과 교류가 어려웠지만, 이번에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재밌었다.

하지만, 기말고사 끝나고 부랴부랴 빨리 준비하다 보니 준비도 미흡해 많이 아쉬움이 남기도 했었다.

만약 만전의 상태로 싸울 수 있었다면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, 커리큘럼 상 오목 배틀할 시간을 내기도 지금 아니면 내기도 어렵고, 어쨌든 재밌게 했다는 점에서 만족 했다.